

#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 소공동체 모임 순서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소공동체 모임 시작 전에 매월 둘째 혹은 셋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 1. 시작성가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 진행자 |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 )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2. 인사 나누기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 진행자 |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 3. 전 모임 기록 낭독

| 진행자 |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 진행자 | :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1] 주님초대하기

####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 [5] 말씀 살기

- 1) 지난 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 [6] 마침기도

### 5. 희년을 준비하며 : 『기도, 하느님과 대화하는 기술』

| 진행자 | : '희년을 준비하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진행자 |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 진행자 |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 진행자 |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진행자 |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 9. 마침성가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 진행자 |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 )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 사순 제4주일(3월 10일)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요한 3,14-21)



### 구리 뱀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구약의 구리 뱀 사건을 떠올리게 하며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하는 의미를 설명해주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3,14-15) 구리 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상징이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림 안토니 반 데이크 | 1620년경, 캔버스에 유채, 205 x 235cm, 프라도 미술관, 스페인

###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18번 “골고타 언덕”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어 믿음을 더해주소서.

###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요한 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15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6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17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18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9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20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21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3,15)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는 용기가 따릅니다. 죽음을 이길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요한 3,21)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한 나그네가 겨울날 산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때 굶주린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나그네는 도망가며 낭떠러지로 떨어지다가, 나무줄기를 붙잡고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벼랑 위로 올라가면 늑대의 턱이 되고, 벼랑 아래로 내려가자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는 하느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느님 살려 주세요. 그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감사 한 번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열심히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느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너의 간청을 들어 주겠다. 지금 잡고 있는 그 나무줄기를 놓아라.” 나그네는 “이 나무줄기 때문에 제가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고 살아 있는 것인데 나의 생명과도 같은 이 줄기를 놓으라고요? 전 못합니다.” 그때 비가 내렸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사람들은 땅에서 1미터 위에 있는 나무줄기를 잡고 얼어 죽은 한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믿음은 잡고 있던 나무줄기를 놓아버릴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이 나뭇가지를 놓아버릴 수 있는 용기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18번 “골고타 언덕”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사순 제5주일(3월 17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 12,20-33)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그림 노영숙 | 2017년, 바오로딸컨텐츠 재능기부

##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23번 “십자가 지고 가시는”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어 당신을 뵈을 수 있게 하소서.
- 주님, 저희에게 참된 믿음을 주소서.

##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요한 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20 축제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21 그들은 갈릴래아의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뵈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22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2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25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26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27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28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



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29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30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31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32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일 것이다.” 33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 전생님, 예수님을 뵈고 싶습니다.(요한 12,21)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적이 있습니까? 혹시 내 주위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께 당신을 보여달라고 청하는 것은 아닙니까?

### †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24)

밀알은 땅에 떨어져 썩어야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씨앗자체가 썩어 양분이 되고 그 양분을 딛고서 새로운 싹이 돌아옵니다. 결국 자신이 죽어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웃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세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두 갈래 길을 만났습니다. 그중 나이가 어린 형제가 왼쪽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두 형제는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면 훨씬 쉽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형제에게 그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형제는 왼쪽이 더 빠른 것 같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이때 나이 든 두 형제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어린 형제의 말대로 왼쪽 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린 형제가 직접 그 길을 가보아야만 깨달을 것이기 때문에 두 형제는 기꺼이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을 틔울 수 있듯, 때로는 내 의지와 고집을 잠시 내려놓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에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 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3번 “십자가 지고 가시는”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진해 중앙동성당 구역분과



지난 2023년 8월 20일 모든 구역이 본당 내 각 회합실에서 소공동체 모임을 하였습니다. 총 9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소공동체들이, 교중미사를 마치고 각 회합실에서 실시하였는데, 미사 참석 신자 중 142명(3/2 정도)이 참석하여 오랜만에 본당이 활기를 띄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사 참석이 부진한 가운데, 각 가정마다 돌아가며 했던 소공동체 모임 역시 희미해진 공동체 모임이 되어 갔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멀어진 이들과, 전입·전출 신자가 발생해도 소공동체 구성원 돌봄 활동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3년 7월에 본당신부님과 고심 끝에, 소공동체의 전환점을 만들어 보고자 위와 같이 실행한 결과, 본당 공동체의 복음화와 친교를 위한

자리가 되었으며, 소공동체 모임을 다시 출발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간단한 점심으로 국수와 호박전을 나눠 먹으며 교우들 간의 웃음꽃이 피었고, 어르신들은 오래간만에 이런 시간이 너무 좋다 하시며 매달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황님의 교지인 시노달리타스, 함께 걸어가는 교회!

저희 중앙동 본당은 소공동체 모임을 본당 회합실 또는 가정에서 하고 있으며, 나눔과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참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노달리타스!

소공동체 모임을 교구 사목 방침에 맞춰 작게나마 동참하게 되어 하느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술』<sup>1)</sup>

### 3월 켓세마니에서 드린 예수의 기도<sup>2)</sup>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켓세마니, 곧 올리브 동산에서 드린 예수의 기도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복음서의 장면은 특별히 의미심장합니다. 예수께서는 최후의 만찬 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올리브 산으로 가십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마르 14,26)

예수께서는 기도하기 위해 ‘홀로’ 나아가셨지만, 적어도 세 제자는 당신과 가까운 관계에 머물길 원하십니다. 이는 당신께서 가까이 다가온 죽음을 느끼시는 바로 그 순간에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음으로써 연대해 달라는 간청이며, 무엇보다도 당신께서 아버지의 뜻을 마지막까지 수행하시려는 순간 제자들이 당신과 일치함을 나타내는, 기도 안에서의 가까움입니다. 또한 모든 제자에게 십자가의 길에서 당신을 따르라고 초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켓세마니의 기도 중에 당신 가까이 있기를 바라셨던 세 제자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은 당신께서 ‘그때’ 공포와 번민을 느끼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될 바로 그때 마지막으로 홀로 버려지는 체험을 깊이 하셨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공포와 번민은 죽음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전율,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확신과 우리 삶을 짓누르는 악의 무게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 기도를 계속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마르 14,36) 이 기도에는 세 가지 단계가 드러납니다. 맨 처음 예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중복되어 등장합니다. ‘아빠Abba, 아버지.’(14,36ㄱ)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랍어 ‘아빠’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말

이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관계, 다정다감하고 사랑과 신뢰와 헌신이 가득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둘째 요소는 청원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아버지의 전능하심에 대한 인식이며 이 말로 시작되는 청원은 다시 한 번 죽음과 악 앞에서 예수의 인간적 의지의 비극을 드러냅니다.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그다음 예수의 기도에서 셋째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는 결정적인 것으로서 인간적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에 온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를 끝맺으며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14,36ㄷ) 아드님이 지니신 신적 위격의 일치 안에서 인간적 의지가 ‘아빠’라 불리는 아버지, ‘너’를 향한 ‘나’의 완전한 봉헌을 통해 온전히 실현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치며 주님께 청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마태 6,10)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땅’이 사랑과 자애와 진리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현존하는 ‘하늘’이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켓세마니에서의 끔찍하고도 놀라운 그날 밤, 아버지를 향한 예수의 기도에서 ‘땅’은 ‘하늘’이 되었습니다. 공포와 번민으로 동요되었던 그분의 인간적 의지라는 ‘땅’은 그분의 신적 의지 안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로써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섭리에 더 많이 내맡기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분께 드리는 우리의 ‘예’를 쇠신하고 그분께 “당신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다시금 말하며 우리의 뜻을 그분 뜻에 일치시키기 위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벗 여러분, 당신과 함께 기도 중에 깨어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합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시더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하늘’을 조금이라도 가져다주기 위해 당신께 대한 더 큰 신뢰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합니다.

1) 베네딕토 16세,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술』, 이진수 옮김, 바오로딸, 2014.

2) 알현 강당, 2012년 2월 1일

##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